대한건설협회대구광역시회신임사무처장

채 서 락 前대구시 달서구 도시건설국장

“ 밖에서 보던 것보다 지역 건설업 사정 훨씬 더 어려워 ”

“얼마 전 공직에 몸담고 있을 때에도 지역 건설업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막상건설업계에발을 딛고 보니 밖에서보던것보다 훨씬 더어렵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감이너무없는데다큰 공사는대개 중앙의 대형 업체 몫이라서 손놓은업체들이부지기수입니다.”

지난 달 중순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의 신임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채서락 前대구시 달서구 도시건설국장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수주난으로 고사 직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특히대구지역이다른지역에비해 국비 지원이 턱없이적어공공발주물량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고말했다. 지난 10년 간 지역 업체들의 영업 주무대인 대구·경북 지역이 정부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린데다향후사정도좋지않다는것이다. “ 투자가확정된향후5년간 대형국책사업 예산을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대구·경북은고작20% 수준인8조원에불과한실정입니다.”

채서락 사무처장은 이처럼 어려운 지역 건설업사정을실감나게표현했다.“ 대구지역 업체의 전체 수주액이 전국 9위의 대형 건설업체 1개사 수주액과 비슷하다면 믿겠습니까?” 나아가그는 전국적인 공사 계약액 증가율보다 대구 지역의 계약액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감소추세에있다고설명하였다.

이러한 지역 건설업체의 물량 부족 원인에대해채서락사무처장은정부투자부족과 함께 외지 업체의 물량 잠식을 요인으로 꼽았다. 그에따르면2006년의경우대구지역전체발주금액은약5조원이었지만지역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1조 2,000억원에도 못미쳐 24%에불과했다. 그는이러한지역업체수주비중감소추세가최근수년간확대되고있는점을우려했다. 2003년의경우 지역 업체 수주 비중이 44%를 차지하다가 2004년36%, 2005년22%, 2006년24% 등 해가갈수록줄고있기때문이다.

그는 정부의 획일적인 주택 규제도 지역 건설경기침체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 진단했다. 즉, 서울강남과수도권을겨냥한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의 영향으로 지역의 부동산경기가바닥으로치달으면서민간부문마저위축되어지역업체들의일감확보가 더욱어려워졌다는것이다.

채서락 사무처장은 이러한 지역 건설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발상이 필요하며, 이에 수반되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건설시장에서 대구 업체가 거꾸로 5조원 중 76%인 3조 8,000억원을 수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 유발 계수가 약 2에 이르고, 10억원당 17.9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둬 하도급, 자재구매, 고용창출이활성화됨에따라 대구 경제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달라질 것입니다. 이는 같은 금액을 제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2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지역건설업체의물량확보가관건인만큼채서락사무처장은앞으로지역 내 공공공사의 수주 점유 비중 확대에 진력할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가 대형 공사를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로 분할 발주해주도록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최저가낙찰제공사입찰시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에 따라 입찰 가격에최대5% 정도의인센티브가부여되고, 턴키·대안입찰 공사에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평가 위원이 다수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업체들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미분양 해소 등 민간부문은 모든 지방의 공통된 현안인 만큼 다른 지역의 사무처와 함께 공동으로 수도권과 차별화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말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